高句麗 遺民 후손인 劉元貞과 그 부인 王氏의 墓誌銘에 대한 소개

-국내에 새롭게 알려진 「大唐左龍武大將軍劉公夫人晉陽君夫人王氏墓誌銘」과 관련하여-

안정준(서울시립대 국사학과)

● 「劉元貞墓誌銘」에 대하여

「유원정묘지명」은 2006년에 『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三秦出版社)을 통해서 처음 공개되었다. 여기는 묘지명이 河南省 新安縣 鐵門鎭의 千唐誌齋에 소장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묘지명의 판독문을 실었지만, 그 외에 탁본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중국 국가도서관 사이트(www.nlc.cn)에서 이 묘지명이 河南省 洛陽市에서 출토되었다는 점, 2015년에 제작된 탁본이 소장되어 있다는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1]

유원정 묘지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2] 묘지명에 의하면 유원정 일가는 漢人계통의 劉氏이며, 유원정의 8대조로서 博士郎中을 지냈다고 기록된 劉軒은 『晉書』에 同名 인물이 보인다.[3] 묘지명에서 유헌의 死後에 그 자손이 "(北)燕으로부터 요동으로 옮겨갔다"고 한 것은 馮弘의 고구려 망명 시(436)에 고구려에 온 것처럼 서술한 대목이다. 물론 『晉書』의 유헌이 유원정의 실제 선조였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유원정의 조부인 劉婁는 고구려에서 '耨薩'을 역임했는데, 이때 유씨 일족은 李勣이 요동도행군총관으로 출전했던 乾封年間(666~669), 즉 666년 12월부터 평양성이 최종 함락되는 總章元年 9월 이전에 항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4] 따라서 묘지명의 서술대로라면 유씨 일족은 약 230여 년 동안 고구려에 거주했던 것이 된다.

유원정은 天寶 3년(744년)에 관직에 있다가 죽었으며, 그 해 洛陽縣 平陰鄕 奇溪의 북쪽 언덕에 묻혔다고 한다. 묘지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묘주의 나이는 35세이며, 사망 당시의 나이는 불분명하다. 이 묘지명에서 흥미가 가는 부분은 유원정이 조정 내에서의 모종의 거사에 참여한 뒤("中裏見蘖 籌之一淸 四方大定 天下穆穆 拔未隙也"), 종3품에 해당하는 雲麾將軍, 그리고 宮庭 禁衛軍

---

1) http://find.nlc.cn/search/showDocDetails?docId=-2462062516972625108&dataSource=ucs01&query=%E5%8A%89%E5%85%83%E8%B2%9E

2) 최근까지 중국에서 「유원정 묘지명」을 다룬 논문은 辛时代, 2015, 「唐高句丽移民刘元贞墓誌考释」, 『高句丽与东北民族研究』 7, 长春: 吉林大学出版社 뿐이었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다른 논문은 더 찾을 수 없었다.

3) 『晉書』에 따르면 유헌은 長樂郡 출신으로서 北燕 馮跋 재위기(409~430)에 太常丞·博士郎中직을 지냈다고 한다(『晉書』 載記 권125 載記 제25 馮跋).

4) 안정준, 2017, 「당대(唐代)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起源) 고구려 유민(遺民) 일족(一族)의 현황과 그 가계(家系) 기술」, 『역사와 현실』 101, 52쪽, 註40 참조.

인 정3품 左龍武軍大將軍을 역임하였다는 점이다.[5]

유원정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서 젊은 나이에 禁衛軍의 높은 직위를 역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마도 유원정이 참여했다는 모종의 거사가 무엇인지 여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유원정의 묘지명에는 그것이 언제 일어난 무슨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추정의 영역이었다.

● 劉元貞의 부인 王氏 墓誌銘과 그 주요 내용

얼마 전 필자는 중국 국가도서관 사이트(www.nlc.cn)에서 유원정의 묘지명을 검색하다가 그의 부인(이하 王氏 부인) 묘지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大唐左龍武大將軍劉公夫人晉陽君夫人王氏墓誌銘」이 바로 그것인데, 이 묘지명은 이미 1999년에 발견되었으며, 유원정 묘지명과 같은 『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2006, 三秦出版社)에 원문이 공개된 바 있다. 현재 탁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역시 중국국가도서관 사이트에 2015년 제작된 탁본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6] 왕씨 부인의 묘지명에 쓰여진 남편 유원정의 관직명과 사망 날짜, 그의 장남 이름 등을 비교해본 결과 양자가 부부임은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王氏가 유원정의 부인이라는 사실은 중국학자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었다.[7] 또한 부인 왕씨의 묘지명 내용을 통해 남편인 유원정이 훗날 唐 玄宗이 되는 이융기의 휘하에서 위황후 일파의 제거에 참여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8]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인 왕씨의 묘지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王氏 부인의 묘지명에 따르면 부인은 襄平人으로 증조인 景昌이 營州別駕를, 조부인 德徽가 左豹韜衛郎將를 지냈던 집안이었는데, 부친을 일찍 여의었다고 한다. 이 묘지명에는 남편인 유원정의 행적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 唐元之初에 황제께서 禁中에서 소탕하셨는데, 劉公이 보좌하여 장차 이행하려 할 적에 夫人을 은밀히 찾았다. 부인이 말하기를, "신하는 군주에 순응하니,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하면 죽고, 사직을 위해 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물며 大聖께서 勃興하시니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올바른 것으로 되돌려 大道를 이루고, 백성을 크게 보호함이 바로 이 거사에 달려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힘써 행했다. 일이 바로잡힌 뒤 공은 雲麾將軍 右驍衛中郎에 拜授되었으며, 夫人은 太原郡에 봉해졌다.[9]

---

5) 左龍武軍大將軍: 宮庭 禁衛軍의 名稱이다. 中宗이래로 左·右萬騎로 불리던 것이 玄宗 때에 左右龍武軍으로 고쳐졌다. 대개 唐元功臣의 子弟로 선발하였다(『新唐書』 卷50 志40 兵 天子禁軍). 대장군은 정원 1인으로 정3품이다.

6) http://find.nlc.cn/search/showDocDetails?docId=5558577059183940991&dataSource=ucs01&query=%E5%8A%89%E5%85%83%E8%B2%9E

7) 中國文物研究所·千唐誌齋博物館 編, 2008, 『新中国出土墓志 河南[參] 千唐志斋[壹]』, 文物出版社, 13쪽.

8) 辛時代, 2015, 앞의 논문, 144~145쪽.

위의 '唐元之初'에서 '唐元'은 연호로서 원래 唐隆年間(710년 6월 4일~7월 20일)을 가리키는데, 당의 8대 황제인 玄宗 李隆基의 이름자(隆)를 避諱한 것이다. 이 시기 당 조정 내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변란은 710년 6월에 이융기가 韋皇后와 安樂公主 일파를 제거한 사건이다. 이때 유원정은 이융기의 휘하에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불행히도 문헌에는 유원정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거사 전에 이융기의 휘하에는 萬騎라고 불리는 武人 집단이 있었다.

> 상왕의 아들인 臨淄王 李隆基는 예전에 潞州別駕에서 물러나 京師에서 은밀히 재주있고 용맹한 인사를 모으고 사직을 바로잡고 회복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애초에 태종은 官戶와 蕃口 중에서 날래고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호랑이무늬의 옷을 입히고 표범무늬의 언치를 두게하고 사냥하는 곳을 좇으며 말 앞에서 짐승을 쏘게 하였는데, 그들을 百騎라고 하였다. 則天武后 때는 조금 늘려 千騎로 만들어 左右羽林에 예속시켰고, 中宗은 그것을 萬騎라 부르고 사자를 두어서 다스렸다. 이융기는 대개 그 호걸들과 두텁게 관계를 맺었다.[10]

위의 기록에 의하면 이융기는 이미 京師에서 은밀히 재주있고 용맹한 인사를 모으면서 위황후 일파를 제거할 것을 모의했고, 거사에 동원했던 것이 바로 萬騎兵이었다. 이에 앞서 이미 당태종 때부터 官戶와 蕃口 중에서 날래고 용맹한 사람을 뽑은 百騎가 있었는데, 무측천 이래로 充員되어 千騎, 萬騎 등으로 규모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원정이 이융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蕃口로서 千騎 혹은 萬騎에 선발되었던 것이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다.

이융기는 정변이 성공한 뒤에 참가했던 인물들에게 '唐元功臣'이라는 칭호를 내렸고, 당 현종으로 즉위한 뒤에는 이들의 관직을 올려주었다. 왕씨 부인의 묘지명에 따르면 유원정은 위황후 일파 제거의 거사 직전에 부인에게 넌지시 상의를 했으며, 부인이 적극적인 참가를 권하였던 것 같다. 거사가 성공으로 끝나면서 유원정은 尙書兵部의 종3품 雲麾將軍과 宮庭 禁衛軍인 정3품의 左龍武軍大將軍을 차례로 역임하게 됨으로써 가문을 크게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11]

요컨대 夫人 王氏의 묘지명을 통해 고구려 유민 후손인 유원정이 710년경 萬騎 소속으로 당 현종(이융기)의 위황후 일파 제거에 참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당시 萬騎의 일원으로서 위무후의 제거에 참여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고구려 유민 일족인 高德과[12] 王景曜도[13] 있으

---

9) "唐元之初 皇帝掃清中禁 劉公佐命將行 密訪于夫人 夫人曰 人臣之義君 爲社稷死則死 爲社稷亡則亡 又況大聖勃興 天之所與 反正皇極 大庇生人 在此舉矣 公其勉旃 既濟 公拜雲麾將軍 右驍衛中郎 夫人邑封太原郡"(「大唐左龍武大將軍劉公夫人晉陽君夫人王氏墓誌銘」)

10) "相王子臨淄王隆基 先罷潞州別駕 在京師 陰聚才勇之士 謀匡復社稷 初 太宗選官戶及蕃口驍勇者 著虎文衣跨豹文韉 從遊獵 於馬前射禽獸 謂之百騎 則天時稍增為千騎 隸左右羽林 中宗謂之萬騎 置使以領之 隆基皆厚結其豪傑"(『資治通鑑』 唐紀 睿宗 景雲 元年 5月 壬辰)

11) 부인 왕씨의 묘지명에는 "劉公尋加本衛將軍 兼掌環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유원정이 713년 이융기의 태평공주 일파 제거에 참여해서 衛將軍에 오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辛時代, 2015, 앞의 논문, 145쪽).

12) 이동훈, 2008,「高句麗遺民『高德墓誌銘』」,『한국사학보』31, 37~39쪽 참조.

며, 이융기의 家奴였던 王毛仲 역시 武功을 세워 크게 출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唐 玄宗의 즉위 전후에 고구려 유민 일족 가운데 군사적 능력을 통해 京師에서 황실의 권력 투쟁에 활용되었던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원정과 같이 당시 문헌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萬騎의 일원인 고구려 유민 출신들이 더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8세기 초반을 전후해 당 京師에서 활동했던 유민 후손들의 묘지명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고구려 멸망과의 시간적 격차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유민 2~3세대의 활동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北京圖書館金石組 編, 1989,『北京圖書館藏 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23,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 周紹良 主編, 2000, 『全唐文新編(22)』,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4) 선조가 고구려 遺民인지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李仁德의 墓誌銘에서도 위황후 세력 진압에 일조했음을 내세운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원문은 拜根興, 2012,『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志爲中心』, 중국사회과학원출판사를 참조.

※ 현재『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三秦出版社)에 소개돼 있는「大唐左龍武大將軍劉公夫人晉陽君夫人王氏墓誌銘」의 원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大唐左龍武大將軍劉公夫人晉陽君夫人王氏墓誌銘幷序

夫人姓王氏 襄平人也. 營州別駕景昌 其曾. 左豹韜衛郎將德徽 其祖. 處士諶 其父也, 不幸短命. 夫人生數月而拼孤 終鮮伯叔 保養于從娣. 藐在童齔, 婉其成人. 既笄 而適于劉公. 事舅後姑 饘於是粥於是而以孝聞. 唐元之初 皇帝掃淸中禁 劉公佐命將行 密訪于夫人. 夫人曰 人臣之義君 爲社稷死則死爲社稷亡則亡. 又況大聖勃興 天之所與 反正皇極 大庇生人 在此擧矣! 公其勉旃. 既濟 公拜雲麾將軍右驍衛中郎 夫人邑封太原郡. 終或藝宮 始或伏劍 猶若史策稱之 檮杌榮之. 夫人方之 無亦綽綽之有餘裕乎. 劉公尋加本衛將軍 兼掌環列. 改封晉陽君夫人. 自爾劉公位望益崇 夫人每加揖損 君子賴之 助成室家 以之和平. 椒聊衍其實 鳲鳩均我生. 故閨門之內 莫適奚之其母 不知孰者其子. 懽如也 穆如也宗族莫不仰其德焉. 天寶三載春 劉公由左龍武大將軍薨. 夫人銜恤哀慕 僅以形立 因遇心疾 彌載不豫. 以天寶七載七月十六日 薨于東京勝義坊宅之小寢 享年六十有六. 闔門孺母 仁里廢音. 遂以其載十二月卅日 合葬于洛陽縣平陰鄉奇溪北平原舊塋. 大行說次 而左右衛尉供儀以導引. 太僕巾車 而夙駕有司陳饋而庭薦. 生也則德儀爲榮 沒也乃備物爲哀. 有子曰承休 十五而志學 十年而有聞. 承光 承福 承嗣等叙倫則十 厥德維一. 或文章政事歸其能 或環衛分閫資其幹. 所在而稱 賴聖善歟. 諸子知適者早預昇堂之拜 敢備旌旐之闕文. 其詞曰:

歲將暮兮寒風凄然 徒御悲兮旌旐翩翩. 塋域不改兮古木蒼煙 以時合葬兮路通黃泉. 徒恨物化之無故去來非我兮何患乎後先.

前右領軍衛兵曹參軍張載書